

# “광주FC 연승 이끌고 또 태극마크 달아야죠”

### 변준수, A매치 데뷔전 마치고 복귀... 18일 수원FC·22일 김천상무·26일 전북현대 '강행군'

‘국가대표’ 변준수가 광주FC의 연승에 앞장 선다.

2025 동아시아 축구연맹(EAFF) E-1 풋볼 챔피언십(동아시아컵)을 통해 A매치 데뷔전을 치른 변준수가 16일 광주로 복귀했다.

홍명보 감독의 부름을 받아 처음 국가대표에 발탁된 그는 지난 11일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홍콩과의 2차전 선발로 나서 기다렸던 A매치 무대를 밟았다.

한일전으로 치러진 15일 경기에서 한국이 0-1패를 기록하면서 아쉽게 우승은 이루지 못했지만 변준수는 값진 경험을 안고 광주로 왔다.

변준수는 “데뷔전 될 때 오랜만에 긴장하기도 했다. 막상 들어가서 공 차다 보니까 긴장이 풀려서 재미있었다”며 “(태극마크의) 무게감도 다르고 책임감이 많이 따르는 자리가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같이 운동을 할 시간이 많지 않아서 발을 잘 맞춰야 했는데, 전술적으로나 발이 잘 안 맞을 때도 더 주도하면서 경기를 풀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며 대표팀에서 배운 것들을 이야기했다.

국가대표라는 1차 목표를 이룬 변준수는 더 큰

무대를 올려 본다.

동아시아컵은 국제축구연맹(FIFA)이 정한 A매치 기간에 열린 대회라 아니었던 만큼 동아시아 지역에서 뛰는 선수들 위주로 대표팀이 구성됐던 상황. 변준수는 더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해외파 형들과 뛰는 또 다른 국가대표 경기를 꿈꾸고 있다.

변준수는 “잘해왔던 모습들, 빌드업적인 부분은 자신 있게 잘한 것 같다.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하면서 더 잘해야 할 것 같다. 수비수니까 수비적인 부분 먼저 잘해야 할 것 같고, 실수를 조금 더 줄여야 한다. 정확도를 높이는 게 중요한 것 같다”며 “해외파 형들, 더 대단한 선수들이 많아서 같이 하면 나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한다. 상대하면서 많이 늘 수 있을 것 같다. 또 대표팀에 뽑히려면 팀에서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팀에서 더 좋은 모습 보여주겠다”고 다음 무대를 기대했다.

다음 국가대표 목표를 위해 변준수는 초심으로 ‘광주FC’에 집중할 생각이다.

변준수는 “대표팀 다녀왔다고 태도가 안 좋아지는 것을 이정호 감독님이 안 좋아하시니까 하던 대로 싸울 때는 싸우고 부드럽게 플레이할 때는 플레

이하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이야기했다.

6월 28일 FC안양과의 K리그1 21라운드 경기에서 2-1 승리를 이끌었던 변준수는 지난 2일 울산 HD와의 코리아컵 8강전(1-0 승)까지 소화한 뒤 대표팀에 합류했었다.

바쁘게 달려온 변준수 앞에 또 다른 강행군이 기다리고 있다.

광주는 18일 오후 7시 30분 수원FC와의 원정경기를 통해 리그 순위 싸움을 재개한다. 그리고 22일 김천상무, 26일 전북현대와의 홈경기가 이어진다.

무더위 속 빼듯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지만 변준수는 ‘패기’로 광주 연승에 힘을 보태겠다는 각오다.

변준수는 “아직은 어려서 체력적인 부분은 괜찮다. 힘들고 그런 건 많이 없고 재밌게 잘 보내고 있다”며 “지금 팀이 3경기 무패이기는 한데 그런 것 생각하지 않고 연승을 할 수 있게 해야 할 것 같다. 올 시즌 리그 연승이 없다. 2연승, 3연승 이어가고 싶은 생각이다. 연승 할 수 있게 뒤에서 골 먹지 않고 좋은 경기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글·사진=김여을 기자 wool@kwangju.co.kr



2025년 동아시아축구연맹 동아시아컵을 통해 A매치 데뷔전을 치른 광주FC의 변준수가 대표팀 일정을 마무리하고 16일 팀에 복귀했다.



포항 스틸러스에 입단한 기성용이 4일 경북 포항시 포항스틸러스 송라클럽하우스에서 열린 팀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 ‘17경기 무패’ 전북이나... ‘기성용 데뷔’ 포항이나

### 19일 K리그1 22라운드

2025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아컵) 기간 잠시 숨을 골랐던 프로축구 K리그1이 순위 싸움을 재개한다.

하나은행 K리그1 2025 22라운드 6경기가 오는 18~20일 열린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19일 오후 7시 포항스틸러스에서 열리는 포항 스틸러스-전북 현대전이다.

“패배를 잊은” 선두 전북(승점 45)에 4위 포항(승점 32)이 도전장을 던진다.

전북은 K리그1에서 17경기 연속 무패 행진(12승 5무)을 벌이고 있다.

코리아컵 3경기 승리를 포함하면 공식전 20경기 무패를 기록하며 시즌 더블(2관왕)을 향해 패스 질주 중이다.

반면 포항은 최근 리그 4경기에서 1승 1무 2패로

주춤했다. 4위에 올라 있던 하지만 2위 대전하나시티즌(승점 35)부터 7위 FC서울(승점 30)까지 승점 차가 5점뿐이다.

지난 3월 16일 전주에서 벌인 두 팀의 시즌 첫 대결에서는 전북이 전반에 전진우, 박재용의 연속골로 앞섰으나 후반에 포항 이태석과 조상혁의 득점이 터져 2-2 무승부로 끝났다.

두 팀의 시즌 두 번째 맞대결이 더욱 시선이 쏠리는 이유는 국가대표 출신의 베테랑 미드필더 기성용의 포항 데뷔전이 될 수 있어서다.

K리그에서는 서울에서만 통산 198경기에 출전해 14골 19도움을 기록한 기성용은 지난 3월 포항에 입단했다.

“서울의 레전드”이지만 서울에서 더는 설 자리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기성용은 펼 수 있는 곳을 찾아 포항으로 향했다.

기성용은 4월 12일 대전과의 K리그1 8라운드에

서 햄스트링을 다친 뒤 그라운드에서 서지 못했다. 이번 전북전에서 포항 유니폼을 입고 첫선을 보일 가능성은 크다.

기성용은 지난 4일 포항 입단 기자회견에서 “부상에서 완벽하게 회복했고, 열심히 훈련하며 준비했다. 몸 상태가 예전보다 훨씬 낫다”면서 “경기 공백은 분명히 있어서 새로 들어간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지만, 올해 초반만큼의 경기력을 보일 수 있을 거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박태하 포항 감독도 기성용의 출전 시점과 관련해 “몸 상태만 괜찮으면 투입할 생각이다. 경기 나갈 상황이 된다면, 언제든지 주전으로 활용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핵심 미드필더인 오베르타이 직전 라운드인 서울과 원정 경기에서 퇴장당해 전북전에 펼 수 없다는 점도 기성용의 출전 전망을 밝힌다.

/연합뉴스

## 매일 30층 아파트 계단 오른 69세 김무순 프로당구 드림투어 개막전 ‘최고령’ 우승

한국 3쿠션 1세대를 대표하는 김무순(69·사진)이 프로당구 드림투어 정상에 오르며 PBA 최고령 우승 기록을 새로 썼다.

김무순은 15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PBA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2026시즌 PBA 드림투어 개막전’ 결승에서 마원희를 세트스코어 3-0(15-14 15-7 15-8)으로 완파하고 우승을 차지했다.

1986년 대한당구회(현 대한당구연맹) 주최 한국프로당구대회 초대 3쿠션 챔피언 출신인 김무순은 이번 우승으로 생애 첫 PBA 개인 투어 우승을 차지했고 만 69세 10개월 9일의 나이로 PBA 역사상 최고령 우승자가 됐다.

지난 시즌 1부 투어 포인트 랭킹 61위로 강등권에 밀린 김무순은 승강전인 큐스쿨에서도 탈락하며 드림투어(2부)로 내려왔다.

그러나 철저부심 끝에 시즌 개막전에서 정상에 밟아 우승 상금 1000만원과 랭킹 포인트 1만 점



을 획득, 다음 시즌 1부 복귀에 청신호를 줬다. 2020년 챌린지(3부) 투어를 통해 PBA에 도전장을 내밀었던 김무순은 이후 좀처럼 1부 승격에 성공하지 못하다가 2024-2025시즌을 앞두고 열린 큐스쿨에서 1부 진입에 성공한 바 있다. 드림투어 개막전을 마친 PBA는 오는 22일부터 같은 장소에서 ‘엘컴저축은행 PBA 리그 2025-2026 1라운드’를 9일간 개최한다. /연합뉴스

## ‘광주 연고’ OK 웃맨 럭비단, 중학생 아카데미 개최

광주를 연고로 하는 OK 웃맨 럭비단이 한국 럭비 유망주들을 대상으로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OK웃맨그룹은 16일 “OK 웃맨 럭비단이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중학생 선수를 대상으로 럭비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인천 하나글로벌캠퍼스에서 진행되며 오영길 감독과 코칭스태프, 선수들이 직접 참가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아카데미 첫날 패스, 킥 등 기본기 훈련과 선수로서 정확히 알아야 하는 럭비 규칙 교육이 이뤄진다. 디펜스, 어택 훈련에 이어 아카데미 마지막 날에는 미니 럭비 게임을 갖고 선수들이 배운 걸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컨디셔닝을 위한 부상 방지 교육도 진행된다.

희생, 인내, 협동의 3대 럭비정신과 상대를 존중하는 ‘노사이드(No-side) 정신’을 알리는 시간도 마련된다.

참가자들은 재일조선인학교인 일본 오사카조 선고급학교 럭비부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60만 번의 트라이’를 시청하고, 실제 주인공인 오영길 감독과 함께 선배 러거들로부터 럭비 선수로서 가져야 할 스포츠맨십과 삶의 조언을 듣는 시간을 갖는다.

오영길 감독은 “선수들이 투혼을 발휘하고 있는데 이를 보고 어린 선수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지원과 시스템이 많이 부족하다. 럭비 꿈나무들에게 ‘진짜 럭비’를 보여주겠다”며 “경쟁이 아닌 성장, 혼나며 배우는 훈련이 아닌 몸을 부딪으며 즐기고 배우는 럭비를 전파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중학교 럭비 선수라면 누구나 아카데미에 참가할 수 있다.

참가 신청서는 18일까지 웃맨 럭비단 공식 SNS에 기재된 이메일 주소(okrugby@nate.com)로 접수하면 된다. /김여을 기자 wool@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광주시립교향악단 제397회 정기연주회  
‘Brilliant Colours’

일시 : 2025-07-25(금)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41

광주시립교향악단 오티움 콘서트 III  
‘Flute’

일시 : 2025-08-22(금)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문의 : 062-613-8241